

[일반 논문]

북한 정권초기 문화 권력의 대중지배 전략 연구

Popular control strategic study of cultural power
in North Korea political power early stage

김지니

(통일문화콘텐츠연구회 연구원)

차례

1. 서론

2. 인민대중의 '예술 주체화' 전략

3. '전문예술'을 통한 교화 전략

4.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북한정권 초기 북한이 인민대중을 교양·교육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을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였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예술'의 존재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마치 발생부터 '예술을 위한 예술'로 존재했을 것 같은 '예술'이 그 자체로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예술을 위한 예술'은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정착될 수 있었다. 이전까지 '예술'은 종교적,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제의적 행위와 목적을 위해, 또는 정치선전용으로 창작·활용되었다. 물론 '예술을 위한 예술' 운동이 발흥되기 이전의 사회에서도 집단과 사회가 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 상관 없이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창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예술'은 분명 다양한 사회적 제약과 기준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제약과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으므로 '예

술을 위한 예술' 운동 이후의 시기와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현대의 모든 사회에서 통용,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예술'과 '예술가'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평가는 국가와 권력집단에서 전문예술인과 일반대중의 몫이 되었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예술'과 '예술가'조차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합의되고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¹⁾ 실제로 나치 독일과 소련, 중국 등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주된 예술 표현양식으로 채택하고 '예술의 자유'를 통제·조정하였다.²⁾ 이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술'은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한', '인민대중을 교양·교육하고 선전 선동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였다.

북한이라는 사회 역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예술'은 정치사회적, 정책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효과적으로 인민대중을 통제·조정하기 위해 '예술 대중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예술 대중화' 정책은 행위자 중심 전략과 향수자 중심 전략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예술에 대해 수동적 입장이었던 일반대중을 능동적 행위자로 발전시킴으로써 예술을 통한 지배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예술 대중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까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는 대부분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해방직후 조직된 '예술씨클'은 직능별, 단위별로 세분화되어 구성되었다. '예술씨클'은 1960년대 초반 '조선말 정책'에 의해 '예술소조'로 명칭이 변경된다. 북한의 '예술소조'는 일반대중의 계획적이고 공동체적인 여가생활 조직이다. 동시에 일반대중의 예술가적 지위를 전문화하는 예술교육 공간이며

1) "예술을 예술 그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회현상의 총체와 현실과의 연관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물질적 기초, 즉 경제적 토대, 사회적 구성, 재계급의 투쟁과의 연관에 의해 설명해야..." 헤르하르트 운,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입문』, 서울: 사계절, 1989, p.173.

2) "국가 공산주의의 주된 예술표현양식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34년 조셉 스탈린 통치하의 소련에서 공식적인 미학으로 정의되고 소개된 이후 전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전파되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가장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된 20세기의 예술사조 중 하나였다." 토비 클락, 『20세기 정치선전 예술』, 서울: 예경, 2000, p.75.

‘자급자족식’ 선전·선동, 교양·교육 예술단체이다. 이외에 ‘구락부’, ‘도서관’, ‘민주선전실’, ‘학생소년궁전’ 등은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 대중화’ 사업의 기반 시설이다.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조직과 단체, 예술공간 등은 북한의 대중 지배 정책의 전략적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³⁾ 북한은 일반대중이 주체가 되는 예술조직과 공간뿐만 아니라 전국적 규모의 예술축전 및 경연에 일반대중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심리적 대통합과 예술정책의 성과를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북한의 대중 지배 전략은 ‘전문예술’을 통해서도 실현되었다. 북한은 철저히 계획되고 사전 검열된 ‘전문예술’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전문예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예술인’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정권초기부터 ‘전문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이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권초기 예술정책은 단기간에 북한 ‘예술작품’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북한은 ‘전문예술’의 양적 성장을 통해 일반대중의 ‘예술경험’을 확대하고 계획되고 검열된 질적 성장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예술작품’을 제공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전문예술’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정치적·정책적 의도와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정권초기 문화권력의 대중 지배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를 본 연구의 시기적 대상으로 제한한다.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현재까지 유지·운영되어 오고 있는 ‘대중 예술조직’과 ‘대중 예술공간’ 등이 대부분 완성되는 시기이다. 1960년대 이후에도 ‘예술 대중화’ 정책을 통한 북한의 대중 지배 전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과 단체 및 공간이 종전과 구별되게 증가하거나 확대되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질적, 내용적 변화를 통해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중 지배 전략을 수정·보완해 왔다.

본 연구는 북한 정권초기 북한의 ‘예술 대중화’ 정책이 어떠한 전략적 조직과

3) “이러한 문화 시설들은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군중적 문화활동의 중심으로 되어 그들의 정치 문화 수준제고에 거대한 역할을 놓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p.380.

단체, 공간을 통해 추진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북한 대중 지배 전략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북한의 대중 지배 전략이 실제로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위기, 또는 정치적·정책적 실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을 위해 북한에서 발간된 정기간행물 《조선중앙연감》, 《조선예술》, 《예술교육》, 《조선문학예술연감》을 비롯하여 《로동신문》 및 『김일성저작선집』, 『김정일선집』을 비롯한 북한 단행본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인민대중의 ‘예술 주체화’ 전략

1) ‘대중 예술조직’을 통한 대중 지배 전략

북한의 대표적인 ‘대중 예술조직’은 ‘예술소조’이다. ‘예술소조’는 해방직후 ‘예술씨클’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조선말 정책’에 따라 ‘예술소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방직후 ‘예술소조’는 지역별 공장, 광산, 농어촌, 기업, 학교, 군대 등 단위별, 직능별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예술소조’는 설립 이후 각 지역별, 단위별로 세분화되면서 <표-1>과 같이 양적 규모를 확대해 갔다.

<표-1> 씨클 및 씨클원수 증감표

(단위 : 명)

연도	총씨클수	총씨클원수	학교씨클		농촌씨클		직장씨클	
			총씨클수	총씨클원수	총씨클수	총씨클원수	총씨클수	총씨클원수
1954	14,786	304,040	630	51,653	9,959	182,198	3,300	70,189
1955	27,970	673,210	10,329	324,053	13,743	254,965	3,898	94,192
1956	51,540	1,235,149	15,711	508,552	30,050	192,867	5,779	173,630
1957	72,990	1,588,027	19,868	647,284	43,667	705,378	8,375	220,261
1958	79,839	1,980,323	21,563	829,967	47,253	882,780	10,923	297,576

※ 본 통계는 《조선중앙연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북한의 ‘예술소조’는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예, 농악, 종합, 연극 등 예술 장르별로 구성·운영된다.⁴⁾ 1957년에는 예술 장르 뿐만 아니라 요리, 재봉 등 실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 문화 씨클’이 신설되어 분야를 확대하였다. 각 예술장르에 취미가 있는 일반대중은 ‘예술소조’ 활동을 통해 능동적 행위자로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의 ‘예술소조원’들은 소규모 발표회, 예술축전, 경연대회 등을 통해 활발한 창작·공연·전시 활동을 하고 있다.⁵⁾

북한 ‘예술소조’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 아마추어 예술가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북한은 일반대중의 ‘예술적 소양’을 증진시켜 전문적 예술을 통한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전문예술인들을 ‘예술소조’에 파견하여 ‘예술소조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1957년 90명의 전문예술인들을 ‘예술소조’에 파견한 이래 매해 파견 인력을 증원하여 1960년에는 118명의 전문예술인들을 장기 파견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각 지역 극장과 각 대학에 ‘씨클지도자양성반’과 직장내에 ‘야간예술학교’를 설치하여 ‘예술소조원’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핵심 소조원’들을 양성하였다.⁶⁾

둘째, ‘자급자족식’ 선전·선동, 교양·교육 조직으로서의 역할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소조’는 아마추어 예술집단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부분적인 전문 예술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예술소조’는 생산현장과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4) “인민들 속에서 문화 생활이 급속히 향상됨에 따라 문학 예술 각 부문에 걸친 씨클이 군중 속에서 광범히 조직돼 있다. 씨클은 연극, 음악, 무용, 농악, 체육, 문학 등 각 부문에 걸쳐 공장, 광산, 기업소, 학교와 농촌, 연촌 및 인민군대 내에 광범히 조직되어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4~1955》,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5, p.464.

5) “8·15 해방 12주년 기념 및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10.18~11.10)은 9개 도의 종합 예술단과 평양시 및 개성시의 종합 씨클단원 1,491명(그 중 전문 예술인 소련대 18개 498명, 씨클 단체 101개 993명-공장 기업소 등 생산 직장 씨클 55개 661명, 국영 농목장 및 농업 협동 조합 씨클 34개 268명, 학교 씨클 12개단체 64명)의 참가하에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8》,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8, pp.147~148.

6) “생산 기업소들에 파견된 예술인들은 파견기간에 직장 씨클을 능히 지도할 수 있는 8,500여명의 씨클 핵심들을 육성하였으며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노동 생활과 현실 그 자체를 내용으로 한 2,239건의 새 작품들을 창작하게 하였고 협동화된 농촌에 수 많은 씨클 핵심들을 새로 양성하여 공고한 군중 예술 진지를 축성해 놓았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1》,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1, p.225.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예술소조’는 활동성과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기동 예술선전대’를 편성하여 선전·선동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⁷⁾ 북한은 각 지역별, 단위별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예술소조’의 목적과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예술인’들과 ‘전문예술단체’들이 포용할 수 없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북한은 소속 노동현장의 ‘예술소조’로 하여금 기존의 ‘전문예술인’들과 ‘전문예술단체’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정치적·정책적 목적 실현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여가생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예술소조’는 북한의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여가생활’ 공간이다. 개인의 유희와 유희가 철저하게 통제되는 북한에서 ‘예술소조’는 북한 주민들의 유희적 욕구와 생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북한 주민들의 ‘예술소조’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였다.⁸⁾ 북한은 인민대중의 ‘여가생활’을 ‘예술소조’라는 일정한 제도와 장소로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예술활동’을 통한 심리적 여유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민대중에 대한 북한의 ‘지배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은 해방직후 ‘예술소조’라는 ‘대중 예술조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민대중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예술소조’는 중앙은 물론이고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북한 인민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였다. 북한의 ‘예술소조’는 조직된 이후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중 예술조직’이자 정책 실현의 효과적인 통로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설립된 공간이라는 대중성과 비교적 소규모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는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북한의 정치적·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전·선동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북한의 ‘예술소조’는 이러한 점에서 북한정권 초기 북한의 ‘예술’을 통한 ‘대중지배’ 전략의 대표적인

7) “1961년말 현재 공화국 전 지역에는 197만 1,000여 명을 망라한 8만 5,400여 개의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각종 무예 씨름들이 운영되었다. 생산직장, 협동농장, 학교, 사무, 직장 등 씨름들에서는 기동예술 선동대를 조직하여 포전과 기대앞에서 그리고 야외 무대들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p.277.

8) “날로 향상되는 근로인민들의 예술문화적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북반부 공장 광산 기업소 농어촌 학교등에 수천의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체육씨-름들이 조직되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1952》, 앞의 책, p.380.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 대중 예술공간을 통한 대중 지배 전략

북한의 '대중 예술공간'은 연령별, 계층별로 구분되어 활용된다. 해방직후 설립된 '구락부', '민주선전실' 등은 리, 동, 읍, 구 등 소규모 단위별 공장, 기업소, 농촌, 광산 등 노동현장의 인민대중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대중 예술공간'이다. 이외에 인민대중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로 '도서관', '박물관', '전람관', '극장', '영화관' 등이 있다. 그러나 능동적 주체로서 직접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락부', '민주선전실'과 구별된다. 북한은 '구락부', '민주선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날에, 《리, 동, 로동자구, 공장, 기업소들에 설치되었던 정치문화교양실》⁹⁾

전날에, ① 문화오락이나 친목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사람들의 단체 ② 주로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교양사업을 하는데 쓰이는 공공건물 ③ 체육, 문화 또는 그밖의 일정한 분야에서 실지로 배우면서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¹⁰⁾

북한의 '구락부'와 '민주선전실'은 '예술 대중화' 정책에 따라 <표-2>와 같이 한국전쟁 전·후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구락부'와 '민주선전실'은 복합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대중 시설이다. 이러한 '대중 예술공간'은 '정치 교양'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자료실'과 '재료실', '도서관'의 역할 등 복합적 기능을 하였다.

9) 민주선전실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6, p.563.

10) 구락부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다. 위의 책, p.142.

〈표-2〉 '민주선전실' 및 '구락부' 증감표

(단위 : 개)

년도	민주선전실 수	구락부 수
1947	8,985	—
1948	19,401	252
1949	21,821	317
1955	4,311	249
1956	4,302	—
	분실 10,883	
1957	4,313	—
1958	8,073 ¹¹⁾	472
1960	12,434	519
1961	26,020	502
1962	278,35	623
1963	29,863	826
1964	30,044	1,123

※ 1947년, 1956년, 1957년 '구락부 수'는 자료의 부재로 알 수 없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구락부'와 '민주선전실'의 '노동력 고취'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작업반 민주선전실', '현장 민주선전실'이 노동현장에서 운영되었다. 노동현장 내에 설치된 '작업반 민주선전실'과 '현장 민주선전실'에서는 '기동선동대' 또는 '예술소조'의 다양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졌다. '작업반 민주선전실'과 '현장 민주선전실'은 '노동력 고취'에 목적을 두고 설치된 '대중 예술공간'으로 기존의 '민주선전실'의 개념과 차별화된다.¹²⁾

11)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된 새로운 환경에 알맞게 농촌 민주 선전실은 내각 명령 제74호 (1958. 8. 1)에 의하여 농업 협동 조합 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9》,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9, p.224.

12) “근로자들이 일을 더욱 흥겹게 하기 위하여 노동할 때는 기대 열고 포전에 간편하게 현장 민주 선전실을 설치하여 여기에서는 기동 선동대들의 노래와 춤, 재담 등으로 근로자들의 증산 투쟁을 고무한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2》, 앞의 책, p.278.

〈표-3〉 '민주선전실' 역할 변화 분석표

해방직후	한국전쟁직후	1960년대
○ 이러한 문화시설들은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군중의 문화활동의 중심으로 되어 그들의 정치 문화수준제고에 거대한 역할을 늘고 있었다.	○ 특히 농촌 민주 선전실에서 실질적 다수화 영농법을 비롯한 영농 경험이 민주 선전실을 중심으로 교환되며 다수화 투쟁을 고무하는 선동 사업의 중심으로도 되고 있다.	○ 근로자들이 일을 더욱 흥겹게 하기 위하여 노동할 때는 기대 열과 포전에 간편하게 현장 민주 선전실을 설치하여 여기에서는 기동 선동대들이 노래와 춤, 재담등으로 근로자들의 증산 투쟁을 고무한다.

‘학생소년궁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립된 ‘대중 예술공간’이다. 1963년 9월 30일 북한의 ‘학생절’을 맞아 계관된 ‘학생소년궁전’은 일반 극장, 공연장의 역할과 동시에 예술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과외 교습소’의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취미,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북한은 ‘학생소년궁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육교양기관 또는 그 건물¹³⁾

부지면적 11만 평방미터, 연 건평 4만 7,5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궁전은 우리 나라 학생 소년들의 과학, 문화, 예술의 전당이며 그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거점으로서 1963년 9월 30일 첫 학생절을 계기로 개관되었다.¹⁴⁾

북한이 해방직후 설립·운영한 ‘구락부’, ‘민주선전실’을 비롯하여 1960년대 계관된 ‘학생소년궁전’과 같은 ‘대중 예술공간’은 인민대중의 ‘예술활동’ 공간의 기능과 함께 ‘예술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구락부’, ‘민주선전실’은 다양한 예술장르를 창작하고 학습하는 실습실인 동시에 ‘예술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자 재료실의 역할을 하였다.

13) 평양학생소년궁전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앞의 책, p.1312.

14) 학생소년궁전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4》,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4, p.218.

‘구락부’와 ‘민주선전실’에서는 인민대중의 순수 ‘예술활동’ 뿐 아니라 유희에 가까운 사교무용, 각종 오락 등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립·운영된 ‘학생소년궁전’은 ‘구락부’, ‘민주선전실’에 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공간이다. 또한 ‘구락부’, ‘민주선전실’, ‘학생소년궁전’은 북한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선전하고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선동의 기지 역할을 하였다.

전후에 우리 당과 정부 앞에 제기되는 정치, 경제, 문화적 과업들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에서 파괴된 문화선전기관들을 복구정비하며 그 사업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장, 농촌, 어촌들에서 문화선전기관들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직장구락부, 농촌 민주선전실들을 복구정비하며 거기에 문화기재, 선전자료, 출판물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직장구락부주임들과 ‘민주선전실’ 장들을 재교양하는 사업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¹⁵⁾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일반대중의 ‘예술활동’ 공간을 설립·지원함으로써 대중을 통합적이고 획일적으로 교양·교육, 이념의 우수성과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정치적·정책적 노선과 방향으로 선동하고자 하였다. 해방직후부터 일반대중의 ‘예술활동’을 위해 보장된 ‘대중 예술공간’은 ‘예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중을 지배하고자 했던 정권초기 북한의 대중지배 전략의 성과물 중 하나이다. 북한은 해방직후 정책적으로 ‘대중 예술공간’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이 갖는 실질적 통합의 기능과 보편적 기준을 따르려는 대중심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예술’은 남한과 달리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계층별, 대상별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광범위하게 제공되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예술 정책은 ‘예술’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일관되게 교양·교육, 선전·선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체제의 위기 때마다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북한의 다양한 예술조직과 예술단체들은 이러한

15) 위의 책, pp.418~419.

북한의 의지를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강조되었다. 북한의 ‘예술’이 북한의 ‘기대’와 같이 일반대중을 완벽히 조정·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존재 자체의 특성과 일반대중을 광범위하게 포용하는 북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북한 ‘예술’이 갖는 조정력과 통제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대중 예술공간’은 ‘예술’이라는 형이상학적 대상을 통해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고 일반대중을 지속적이고 획일적으로 조정·통제하고자 했던 북한의 대중 지배전략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대중 예술 축전·경연을 통한 대중 지배 전략

해방직후 북한은 다양한 문화시설과 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일반대중의 ‘예술 활동’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술경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까지 예술축전 및 예술경연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행사는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체육은 정부 차원의 전국대회가 일찍부터 추진되었다. 북한은 1949년 8월 2일에 ‘체육절’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경축행사 및 체육행사를 진행하였다.¹⁶⁾ 이 시기 체육은 전문적 인재와 기량이 축적되어야 하는 ‘예술’에 비해 신체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종목들이 주를 이루었다.¹⁷⁾ 때문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 체육인이 아닌 일반대중의 참여가 가능하였으며 국가적 행사로서 접근이 용이하였다.

16) “공화국 내각은 체육을 통하여 도덕과 조국보위에 준비된 인민들의 건전한 체위와 무한한 애국심과 고도로 발전하는 체육문화를 국내외에 시위하며 국가적으로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더욱 광범하게 체육교양을 받도록 추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절로 제정할 것을 1949년 8월 2일 내각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체육절에는 전국적으로 체육인들의 경주시위 및 체육행사가 버려지며 그리고 매년 체육절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종합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1952》, 앞의 책, p.393.

17) “북반부의 체육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단련되어 근로와 조국보위에 종사할 수 있는 성격과 기능을 소유하는 조직있고 규율있는 청년세대를 육성하여 직접생산과 조국보위에 결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위의 책, p.393.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북한은 해방직후 조직하고 제도화 한 문화예술 기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였으며 정부의 조정 및 통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다.¹⁸⁾ 이에 따라 문화예술의 정치적·정책적 역할도 확대되었다. 이 시기 문화예술은 ‘전문예술인’들의 ‘예술활동’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예술활동’의 영역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예술소조’ 및 ‘구락부’, ‘민주선전실’ 등과 같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들을 기반으로 성장한 일반대중의 ‘예술활동’이 현실적, 제도적으로 중앙 및 지역에 빠른 속도로 정착·정립되고 있었다.

이에 북한은 이러한 일반대중의 ‘예술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강화하여 ‘예술’을 통한 대중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정기적인 대규모 행사를 마련·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전국예술축전’이 있다. ‘전국예술축전’은 매해 8·15 해방을 기념하여 실시되었다. ‘전국예술축전’은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 및 ‘예술소조’도 참가하는 전국적, 대규모 행사이다. ‘전국예술축전’에서는 연극, 음악, 무용, 고전, 만담, 곡예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망라되어 진행된다. ‘전국예술축전’은 ‘보여주기’에 그치는 행사의 형태가 아니라 기량을 겨루는 ‘대회’의 성격에 가깝다. 한국전쟁 직후 실시된 ‘전국예술축전’에서는 연극, 음악·무용, 씨클 문예 작품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 각 장르별 우수작품과 우수한 인재에 대해 시상하였다.

전국 예술 축전은 연극 공쿨과 음악, 무용, 고전, 만담, 곡예, 스킷취 등 각 부문에 걸친 개인, 종합 공쿨 및 씨클 문예 작품 현상 모집 등으로 광범한 예술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12개의 각도 및 인민군, 내무성, 교통성 씨클 종합 예술단과 9개의 연극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씨클 문예 작품 현상 모집에는 근로자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이 광범히 참가하였다.¹⁹⁾

18) “전후 1년간에 연극, 음악, 무용 등 무대 예술의 각 부문에 걸쳐 현저한 창조적 성과와 예술적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전후기에 있어서 조선 로동당의 문예로선과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예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무대 예술 부문 인간들의 노력은 각 극장들의 창조 사업에서 활발한 개진을 가져왔으며 예술적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4~1955》, 앞의 책, p.460.

19) 위의 책, p.462.

북한은 정기적으로 ‘전국예술축전’을 개최하여 ‘전문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적극적으로 ‘예술경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예술활동’ 의지를 고양시켰다. 일반대중은 다양한 시설과 제도적 기반 아래 ‘예술활동’을 함으로써 거부감 없이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로써 북한은 더욱 효과적으로 ‘예술’을 통한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

북한은 매해 정기적으로 실시된 ‘전국예술축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8대 명절에 대규모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종합공연예술 등에 일반대중을 공연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감정적 동화와 감흥을 극대화 하였다. 매해 4월 14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8월 15일 ‘민족해방기념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대규모 ‘예술축전’을 실시함으로써 체제의 건재함과 민족의 우수성, 지도자의 우상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실현시켜 왔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기적인 대규모 ‘예술축전’은 일반대중을 정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예술축전’의 능동적 주체로 공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동질감을 강화하고 북한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북한은 다양한 예술행사를 통한 일반대중의 심리적 충족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중을 지배하는 것과 동시에 체제의 위기와 정치적 변화에 따른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전문예술’을 통한 교화 전략

1) ‘전문예술인력’ 및 단체의 육성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예술’을 효과적인 정책실현의 도구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정권초기 ‘예술’의 개념과 역할을 규정하고 ‘사회주의 예술’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²⁰⁾ 북한은 새로운 체제와 이념에 맞는 ‘사회주의 형식’의 ‘계획된 예술’을 통해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당시 북한의 ‘예술’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매개체인 동시에 새로운 체제와 이념에 대

한 인민대중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급변한 사회질서와 체계를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키는 일종의 '최면요법'의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비하였다. 북한은 해방직후 다양한 예술장르의 '전문예술인'을 영입·지원하고 '전문예술단체'를 중앙 및 각 지역에 설립하였다.²¹⁾ 정권초기 북한의 '전문예술인'들은 '전문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직접적인 '예술활동'은 물론 '전문예술인'들을 양성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함께 하였다. 당시 북한은 '예술'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반영한 질 높은 창작물을 생산하는 '전문예술인'들의 양적 확대는 필수적이었다.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오랜 작가, 예술인들을 민족문화건설사업에 적극 인입하는 동시에 근로인민출신의 신인작가, 예술인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합니다. 지금 노동자, 농민들 속에서 나온 신인작가, 예술인들이 매우 적습니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예술신비주의와 신인작가, 예술인들을 홀시하는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신인들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학예술총동맹에서는 신인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조장발전시키며 그들이 빠른 시일내에 훌륭한 문화예술일군이 되도록 잘 방조하여야 하겠습니다.²²⁾

20) "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위력한 정치사상교양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런것만큼 문학예술인들은 응당 우리 당과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 대변자가 되어야 하며 인민들을 교양하고 우리 공화국을 사수하는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문학예술인들은 당의 정책적요구와 정세의 흐름을 똑똑히 알고 그에 맞게 문학예술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서울 : 문화체육부, 1995, "현시기 문학예술인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문학예술인들에게 한 훈시 1949년 12월 22일), p.340.

21) "작가, 예술인들은 출신과 몇몇지 못한 과거를 묻지 않고서고 은혜로운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포용력과 뜨거운 사랑, 크나큰 신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앞을 다투어 수령님의 품으로 찾아왔다. 그리하여 1948년까지에는 남조선에서 활동하던 작가, 예술인들도 거의다 북반부로 들어와 보람찬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문예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예술령도사』, 평양 : 문예출판사, 1991, p.83.

22)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앞의 책,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7년 9월 16일), p.347.

‘전문예술인’들의 ‘교육자’의 역할은 ‘전문예술인’ 양성에 그치지 않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 당시 ‘전문예술인’들은 구락부, 민주선전실 등과 같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과 ‘예술소조’와 같은 ‘대중 예술조직’에서 아마추어 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교육’을 담당하였다. 북한은 일반대중을 ‘예술활동’의 능동적 주체이자 관심 있는 경험자로 육성함으로써 북한이 규정하는 ‘예술’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예술정책은 해방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정권초기 북한은 ‘예술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예술인’들이 창작의 주체이자 예술작품을 실현해 내는 각각의 구성원이라면 ‘예술단체’는 ‘예술작품’을 가장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조직적이고 잘 훈련된 ‘정예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전문화되고 조직적인 ‘예술단체’를 중앙 및 지역에서 적극 운영하고 ‘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예술경험’을 확대하였다. 북한은 일반대중의 ‘예술경험’을 반복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예술’이 갖는 ‘최면요법’ 효과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중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예술단체’를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해 ‘예술작품’의 창작방향을 제시하고 검열하는 상위 ‘예술조직’을 운영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다.²³⁾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1946년 3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발족하여 1951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1953년 9월에 분리·개편되었다가 1961년에 다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통합·조직되었다.²⁴⁾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예술장르별로 하위 조직들을 두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

23) “문학예술총동맹에서는 산하동맹단체들을 튼튼히 꾸리며 정연한 사업체계를 수립하고 동맹내에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활동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위의 책,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7년 9월 16일), p.348.

24)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지도 체계를 좀 고치고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연합조직을 만들고 당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이 좋다. 작가, 작곡가, 무용가 등 집단들을 그 전과 같이 다시 문예총으로 묶어 가지고 당의 명도 밑에 집체적으로 사업하자.”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584.

북한의 모든 ‘전문예술인’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관리된다. 북한은 정권초기 양적으로 성장한 ‘전문예술인’들과 ‘전문예술단체’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라는 상위 ‘예술조직’을 조직·운영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북한의 대중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문예총의 사업방향과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문예총은 결성된 첫날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들을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적극 벌리는 한편 당문예정책 관철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훌륭하게 반영한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또 이바지하고 있다.²⁵⁾

해방직후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북한의 ‘전문예술단체’는 ‘국립예술단국악단’, ‘시립예술단’, ‘내무성예술단’, ‘인민군예술단’, ‘교통부예술단’²⁶⁾, ‘평양가무단’, ‘중앙예술공작단’, ‘북조선가극단’, ‘중앙교향악단’, ‘보안간부훈련대대부협주단’, ‘최승희무용연구소’, 예술인들로 구성된 ‘방소 예술단’²⁷⁾ 등이 있다. ‘평양가무단’은 1969년에 ‘만수대예술단’으로, ‘중앙예술공작단’은 1946년 ‘국립연극단’으로 ‘북조선가극단’은 1971년 ‘피바다가극단’으로, ‘중앙교향악단’은 1956년 ‘국립교향악단’으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협주단’은 1948년 ‘조선인민군협주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외에도 중앙극장과 도·시립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공연예술단체가 설립·운영되었다.²⁸⁾

2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 『문학예술사전』, 평양 : 사회과학연구원, 1972, ‘조선문학예술총동맹 항목’

26) “팔일오 해방 때부터 육이오까지 북한 공연 단체로는 국립 예술단 국악단, 시립예술단, 내무성 예술단, 인민군 예술단, 교통부 예술단과 최승희 무용 연구소가 있었다.”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서울 : 뿌리깊은 나무, 1995, p. 269.

27) “이 시기에 있어서 조선 방소 예술단의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각지의 순회공연은 조국창건 이후 처음으로 되는 국제무대의 출연으로써 조소량국 인민의 친선을 강화하며 우리의 음악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49. 9~1950. 6》,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0, p.388.

북한 정권초기에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산간지역 등과 같은 소외지역들을 찾아다니며 ‘예술활동’을 하는 ‘이동예술대’와 ‘이동연극대’와 같은 ‘전문예술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²⁹⁾ 이와 같은 ‘전문예술단체’는 소규모의 비정규 단체였다. 남한의 대중예술인들이 성향과 음악적 취향이 비슷한 대중예술인들과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프로젝트 그룹’의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다. 당시 북한은 ‘이동예술대’와 ‘이동연극대’ 등과 같은 ‘프로젝트 예술단’들을 조·운영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대중 지배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기존의 ‘전문공연예술단체’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전문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공작대’, ‘선무공작대’³⁰⁾가 조직되어 군대를 위한 위문공연을 하였다.³¹⁾ 당시 ‘전문예술단체’의 주된 역할은 군대의 전쟁승리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었다.³²⁾ 이 시기 이례적으로 ‘평양교예단’이 1952년에 설립되었으나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전쟁직후 북한은 전쟁 시기에 파괴된 문화시설을 복구하고 ‘전문예술단체’를 재조직·재구성하였다.³³⁾ 전쟁직후 1967년까지 새로 설립된 ‘전문공연예술단체’로는 ‘로동자예술단’, ‘황해남도립예술극장’, ‘량강도립예술극장’, ‘국립아동예술극장’, ‘청년극장창조집단’ 등이 있다. 또한 1961년에는 각 도립 예술극장을 가극단과 연극단으로 분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10개의 ‘전문예술단체’가

28) “각 도립극장들은 정기적으로 장단막물을 가지고 도내 각지에서 활약하였으며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가져 왔다.” 위의 책, p.389.

29) “우수한 예술가들로 구성된 이동예술단들은 공장, 광장, 농촌, 어촌 및 산간벽지까지 다니며 근로인민들의 건설적 의욕을 고무하여 애국주의적인 생활정서를 배양하였다.” 위의 책, p.389.

30) “방소예술단은 우선 해체되었으나 몇몇 중견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남한에 파견할 방소예술단 선무공작대가 조직되었다.” 정병호, 앞의 책, p.50.

31) “예술인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고무하기 위한 공연활동을 널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서울: 문화체육부, 1995,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1950년 12월 24일)”, p.336.

32)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문화예술의 임무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 작가들의 무기는 붓입니다. 작가들은 훌륭한 작품을 많이 써서 인민들속에서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높이고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며 인민들을 원수를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 앞의 책, p.334.

33) “우리는… 민주수도 평양시와 도소재지들에는 예술극장 및 극장들을 건설하도록 3개년계획에 예정할 것이며 1955년부터는 레코드와 축음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1953년 8월 5일)”, pp.418~419.

분리·확대되었다. 북한의 '전문예술단체'는 중앙 및 각 지역에 설립된 극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예술활동'을 하였다. 1953년부터 1963년까지 북한의 극장시설 현황은 <표-4>과 같다.

<표-4> 극장 신설 현황(1954년~1963년)

년도	극장 신설 현황	현재까지 극장 및 좌석수
1953 ~1954	· 각 도립 '이동예술대'와 도립 극장 통합 · 모란봉 극장 신축(800석)	-
1955	· 황해남도과 량강도에 도립 예술극장 창립 · 국립 아동 예술극장 창립	
1958	-	· 극장 12개(국립 민족 예술극장, 국립 연극극장, 국립 예술극장, 각 도소재지와 시(평양시, 개성시) · 총 9,502석
1960	· 평양대극장 신설 · 38개소의 극장 및 영화관 신설(1차 5개년 계획기간에 137개소의 극장, 영화관들을 건설)	· 15개소의 극장과 834개소의 영화시설(영화관 402개소) · 극장 좌석 수 2만 4,317석
1962	· 95개소의 극장, 영화관 신설, 확장	· 19개소 극장과 531개소의 영화관 운영 · 극장 및 영화관 좌석 수 27만 555석(극장 좌석 수 2만 6,620석)
1963	· 31개의 극장 및 영화관 증설 · 학생 소년 궁전 개관(1963년 9월 30일)	· 21개의 극장과 561개의 영화관 운영 · 극장 및 영화관들의 좌석 수 27만 1,964석

※ 본 통계는 《조선중앙연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북한은 정권초기 적극적으로 '전문예술인'을 양성·지원하고 '전문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하여 일반대중의 '예술경험'을 확대하였다. 북한은 철저히 계획·

검열된 ‘예술작품’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하고 ‘예술작품’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선전·선동함으로써 대중 지배력을 확대·강화하였다.

2) ‘북한식’ 예술 형식 개발

해방직후 북한은 정권의 방향과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의 정착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당시에는 전문예술인들조차 급변한 체제와 이념에 ‘적합한’ 문화예술 창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전형을 마련한 소련의 문화예술에 의존하게 된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소련의 음악, 미술, 사진, 영화, 연극, 문학은 물론이고 각종 출판물과 예술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소련의 문화예술을 받아들이려는 북한의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예술작품들을 전람회, 감상회, 전시회 등을 통해 소개하는 한편 강연회, 보고대회와 같은 각종 연구·토론을 위한 행사를 통해 소련의 문화예술 이론, 창작방식, 창작경향을 취득·학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 단체 교류, 소련 전문예술인들의 영입을 통해 소련의 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소문화협회사업’과 ‘문화회관사업’, ‘도서관사업’ 등은 소련의 문화예술 창작방식과 형식이 북한 내에 빠르게 뿌리내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1947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민족적’ 형식과 내용을 가미한 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까지 소련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정권 초기 소련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문예이론과 예술작품을 수용하던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소련중심에서 벗어나 ‘북한식’ 문예이론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소련과 함께 중국이 최대 참전국이자 북한 문화예술 교류의 주요 국가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소련의 문화예술과 함께 중국 문화예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중국을 매개체로 동남아시아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문화예술 교류국들을 확대하면서 한정되어 있던 문화예

술 종목들을 다양화하였다.

‘북한식’ 문화예술 이론과 형식을 정립시키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시기 북한은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서 ‘혁명 전통’과 ‘민족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창작된 예술작품들은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맞게 창작되어 전시·공연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다양한 예술장르가 접목·결합된 독특한 ‘북한식’의 대규모 종합공연예술 형식의 작품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1958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이 있다. 북한은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시작으로 음악서사시, 음악무용서사시극, 집단체조 등과 같은 대규모 종합공연예술 형식의 작품들을 연이어 창작·공연하였다. 당시 대표적인 예술작품들은 집단·공동창작의 형태인 ‘집체작’으로 창작되면서 북한 예술작품 창작의 특징적인 풍토로 자리 잡았다. 북한의 ‘북한식’ 예술형식은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완성을 통해 자리매김하였다. ‘〈피바다〉식 혁명가극’ 형식은 1970년대 초반 북한의 1차 문예혁명과 함께 종전과 구분되는 ‘북한식’ 예술형식의 대표적인 형식적 모델이다.

1960년대 중반, ‘북한식’ 문화예술이 정착되면서 북한은 각종 문헌과 정기간행물을 통해 ‘북한식’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북한식’ 문화예술의 특징이 구현된 예술작품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온 대외 문화예술 교류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식’ 문화예술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함께 다시 긴밀하게 재개된 소련과의 문화예술 교류 역시 종전과 달리 ‘북한식’ 문화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식’의 문화예술 이론과 형식을 마련하고 정체성을 구축하여 갔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한식’, ‘우리식’ 문화예술을 정착시켰다. 북한이 소련의 문화예술 형식과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북한식’의 형식적 모델을 구상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 소련의 정치적 입장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는 소련의 예술정책을 지속 가능한 모델로 유지할 수 없었다. 둘째,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 권력계승과 같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혁명전통’과 ‘민족주의’

를 강조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였다.

북한은 '민속적'이며 '민족적'이고 다양한 예술장르가 종합적으로 합쳐진 '북한식' 예술형식을 '우리식' 예술의 전형으로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전통적 표현양식과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형식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선전하고자 하였다. 정권초기부터 현재까지 강조되고 있는 '북한식 예술'은 '예술'을 통해 대중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대중 지배 전략 중 하나였다.

4. 결론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문화예술을 정책실현과 정치선전의 효과적인 도구로 판단하고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적 요구에 적합한 문화예술을 정착·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해방직후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전문예술인들을 영입·지원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설립하였다. 또한 일반대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별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문화예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갔다.

북한은 이러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반대중을 정치적·정책적 방향과 목적에 맞는 인간형으로 교양·교육하였다. 북한의 '예술'을 통한 대중지배 전략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일반대중과 '전문예술'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문화예술 정책을 진행시켜 왔다. 북한의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 주체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 예술조직'을 통한 아마추어 예술인 양성 정책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대중 예술조직'을 조직·운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예술소조'가 있다. 북한의 '예술소조'는 학교, 농촌, 광산, 기업소 등 직업별로 구분되어 지역별, 단위별로 운영되었다. '예술소조'는 일반대중이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예, 농악, 종합, 연극 등과 같은 예술장르를 학습하는 동시에 일반대중이 능동적 주체로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대중 예술조직'이다. 북한은 '예술소조'를 통해 일반대중을 '예술'에 일가견이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양성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정책실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예술’은 직접 경험을 통해 심리적, 감정적 이입의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북한의 대중지배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대중 예술공간을 통한 집단적, 획일적 예술정책의 추진이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구락부, 민주선전실과 같은 대중 예술공간을 설립·운영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 예술공간은 지역별, 단위별로 운영되었다. 북한의 대중 예술공간은 ‘예술소조’와는 달리 ‘마을’ 단위로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북한은 계층별, 직업별 ‘예술소조’를 운영함과 동시에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구락부, 민주선전실과 같은 대중 예술공간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상황과 공간에 맞는 대중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락부, 민주선전실은 예술 자료를 수집하고 습득하는 예술학습 공간인 동시에 ‘마을’의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예술축전 및 경연을 통한 대중 대통합과 예술정책의 성과 확인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 다양한 예술축전과 예술경연 행사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예술축전과 예술경연에는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일반대중과 직업별, 단위별 ‘예술소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북한의 ‘전국예술축전’은 ‘예술축제’인 동시에 기량을 겨루는 ‘경연’ 행사이다. ‘전국예술축전’에서는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와 일반대중, ‘예술소조’가 구분되어 ‘경연’의 수상 대상이 된다. 북한은 전국적, 대규모의 예술축전 행사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예술적 성장’을 확인하고 ‘경연’을 통해 우수자를 가려내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incentive)를 지불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예술활동’을 증진시켰다.

북한의 ‘예술’을 통한 대중 지배 전략은 ‘전문예술’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해방직후 일반대중의 ‘예술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였다.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는 정부와 상위 예술조직의 조정과 통제 하에 정치적·정책적 방향과 목적에 맞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공급하였다. 북한은 ‘전문예술’을 체계화, 조직화하고 ‘예술작품’의 규모와 내용을 확대하고 화려하게 포장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심리적 감흥과 동화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술작품’의 구체적인 창작 형식과 방향도 정치적·정책적 변화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은 일반대중을 새로운 체제와 이념으로 교양·교육하고 체제의 정당성과 사상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예술’을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였다. 정권 초기 북한은 소련의 문화예술 정책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습함으로써 ‘사회주의 예술’을 빠르게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4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수성과 소련,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등과 같은 문제들에 봉착하면서 ‘북한식’의 문화예술적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식’, ‘우리식’의 형식과 내용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북한은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내세운 종합적이고 화려한 대규모 ‘예술’을 통해 대중을 효과적으로 조정·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예술’을 활용한 대중 지배 전략은 북한 체제의 위기와 급격한 정치적 변화 때마다 형식과 내용의 변화와 강조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구현되고 있다.

‘예술’은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 ‘국가’라는 현재의 개념이 성립되던 시기부터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1900년대 초반 파시스트들과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우던 국가들은 ‘예술’을 정치선전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다양한 예술장르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예술’과 ‘예술가’들을 조정·통제하고자 하였다. ‘예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속·유지되어 오고 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방·개혁과 함께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예술’을 정책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에 맞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북한 역시 여느 사회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방직후 북한은 예술적 역량 및 기반이 부족하였으며 ‘사회주의 예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소련의 문화예술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예술’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예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북한은 꾸준히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대변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북한식’의 예술적 환

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반시설 확충, 지속가능한 제도의 확립, 예술조직 및 예술단체의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예술’을 대중 지배의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다양한 예술정책을 통해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반대중을 위한 문화예술적 인프라는 ‘예술의 대중성’과 ‘예술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체제와 이념을 고수하며 존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일반대중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 지배를 위한 북한의 정책과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의 ‘예술’은 정권 초기부터 북한의 대중 지배 전략의 중요한 매개체로 북한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초기 북한의 대중 예술정책이 정치적·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대중 지배력을 확대·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의 대중 지배 전략은 정권 초기부터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정책과 ‘전문예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예술정책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예술’을 통한 북한의 대중 지배 전략에 대한 연구는 정권 초기 북한의 예술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북한이 정치적·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예술’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함께 볼 수 있었다는 시도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문학예술출판사(1994, 1998~2004), 《조선문학예술연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문학예술종합출판사(1967~2004), 《조선예술》,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중앙통신사(1947~2004),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사.
- 로동신문사(1966~1970),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 문학예술종합출판사(1994), 《문예상식》,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1972),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1973),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1970),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김일성(1967~1994), 『김일성저작선집』, 1~10,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76),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69),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78),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64~2004), 『김정일 선집』, 1~15, 조선로동당출판사.
- 문예출판사(199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예술령도사』, 문예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197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에 대한 사상』, 사회과학출판사.
- 이기주(199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문학예술령도사』, 문예출판사.
- 문화체육부(1997), 『북한의 공연예술단체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문헌자료편)』,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1995),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문화체육부.
- 정병호(1995), 『춤추는 최승희』, 서울 : 뿌리깊은나무.
- 김지니(2007), 「'선군시대' 예술비평 연구」, 《대학생 통일논문집》, 26권, 통일부 통일교육원.
- 전영선·김지니(2007),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대외공연 양상과 특성 연구」, 《남북문화에

2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6호

술연구》, 남북문화예술학회, 창간호.

김지니(2008), 「북한 종합공연예술의 정착과 전개」, 《현대북한연구》, 11권, 북한대학원
대학교.

Abstract

Popular control strategic study of cultural power in North Korea political power early stage

Kim, Ji-ni

The research sees how did North Korea apply a culture and art, prepare what kind of policy and a system and operate, in order to educate north Korea people, there is a goal which analyzes.

The art for an art becomes fixed at last on 19th century latter halves. Until before the art religious, in compliance with a political goal for a proposal act and a purpose, or with political propaganda was created and was applied.

Capitalism, the democratic nations entered and contemporary history circuit they guaranteed the freedom of infinity in art and the artist. Opposes hereupon, communism, the socialist states 'Art' and 'Artist' Even that must be provided, for the purpose which is ultimate and according to principle and rule of the nation. The society which is North Korea as well 'The art' for an art ; Does not recognize. In North Korea 'Art' Comes true the silver political community and a politic subject with the tool for being recognized and being applied.

From this research analyzes popular dominative strategy of cultural power in North Korea political power early stage. This research restricts in the timely object of the research which sees until the before middle of 1960's.

Until before middle of 1960's the common people artistic organization, the artistic group, artistic spatial which is maintained, operated and completed. Even to 1960's after that 'Artistic popularization' The popular dominative

strategy of North Korea which leads a policy was continued. but, new organization and the group and space did not increase and were not magnified.

The research which sees 'the policy of Artistic popularization' is how to lead and what kind of strategic organization and the group, space are propelled, and where the North Korea popular dominative strategy should have been come true bitterly .

This research sees how did it applied effectively in politic realization, social change and crisis of north korea under the popular dominative strategy of North Korea.

주제어 : 예술(art), 북한(North Korea), 북한예술(art of North Korea), 문화예술(culture and art), 대중지배(the mass of people)